

「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」 구성 및 운영방향

2017. 3. 20.

금 융 위 원 회

목 차

I. 4차 산업혁명 개념 및 대응 필요성	1
II. TF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	2
1. TF 구성	2
2. 검토과제	2
3. 향후 운영계획	3
[참고] 4차 산업혁명 대비 금융부문 TF 운영체계	4
[참고] TF 민간위원 명단	5

I. 4차 산업혁명 개념 및 대응 필요성

- **[개념]** 4차 산업혁명은 통상 인공지능, 로봇기술, 생명과학 등이 주도하는 **차세대 산업혁명**을 의미(다보스포럼)
 - 4차 산업혁명은 ●산업·기술 간의 **포괄적 융합**, ●**네트워크 확장**, ●인공지능(AI) 발전에 따른 **지능적 자동화** 등이 주요 특징

[참고] 4차 산업혁명 개념

- 1차 산업혁명의 주요 동인으로 1784년 증기기관, 2차는 1870년대 전력망, 3차는 20세기 중후반 컴퓨터·인터넷 등을 지적 (= 손·발을 기계가 대체·자동화)
-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서 개별 기술들이 융합·연결되어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하는 현상 (= 사람의 두뇌를 인공지능으로 대체)
-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하게 정의 : WEF는 금융·드론·생명공학까지 포괄한 **기술 혁명**, 독일은 **스마트공장화(Industrie 4.0)**, OECD는 **제조혁명**으로 정의

- **[대응 필요성]** 세계 각국이 **저성장을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돌파구**로 4차 산업혁명을 인식하면서 **다각적으로 대응**중
 - **주요 선진국**은 경제, 금융, 노동, 교육 등 사회 전반에 걸친 **대응전략·비전**을 수립·추진중
 - * 미국(대형IT 기업 주도, 정부는 인프라 지원), 독일('15.4월 Industry 4.0), 일본('16.4월 4차 산업혁명 선도전략), 중국('15.5월 중국제조 2025) 등
 - 특히, **금융분야**는 IT 등 **다른 산업과 융합이 용이**하고 혁신의 **속도가 빠르** 만큼,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**선제적 대응** 중요
 - * 금융분야는 4차 산업혁명 논의가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ICT·금융간 융합인 **핀테크 혁명**이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

➔ 4차 산업혁명이 금융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고,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**민·관 합동 대응체계** 신설

- 1 -

II. TF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

1 TF 구성

- 4차 산업혁명 관련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「**4차 산업혁명 전략 위원회**」 출범과 연계하여,
 - * 경제부총리(위원장), 금융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, 민간위원 등 참여
 - 「**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**」를 구성·운영(3.20일~)
- **금융위원회 부위원장**을 팀장으로 **금융위·금감원·협회** 등과 함께 **한국은행,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**로 구성
 - * 학계, KDI·금융연·보험연·자본연 연구위원, 금융권 종사자 등 핀테크·법률·산업전문가 등 다양한 민간위원들이 참여
 - TF 산하에 **실무 작업반**(반장: 금융위 사무처장)을 구성하고, **분야별 작업팀***을 운영
 - *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을 총괄 간사로 하여 ① **총괄대응팀**, ② **금융분야 융합·혁신추진팀**, ③ **차세대 미래산업 금융지원팀** 등 3개 팀으로 운영
→ 향후 TF 논의 등에 따라 **작업팀을 탄력적으로 운영** 예정

2 검토과제(예시)

- 4차 산업혁명 대비 **법·제도 개편 대응**
 - **금융규제 테스트베드** 도입 및 4차 산업혁명 대비 **금융분야 특별법** 제정 검토
 - 4차 산업혁명 대비 **지급결제·예탁제도** 등 금융인프라 개편
 - 4차 산업혁명 진행에 따라 예상되는 **역기능 보완** 등 (예: 새로운 금융서비스 관련 **소비자보호** 문제, **정보보안**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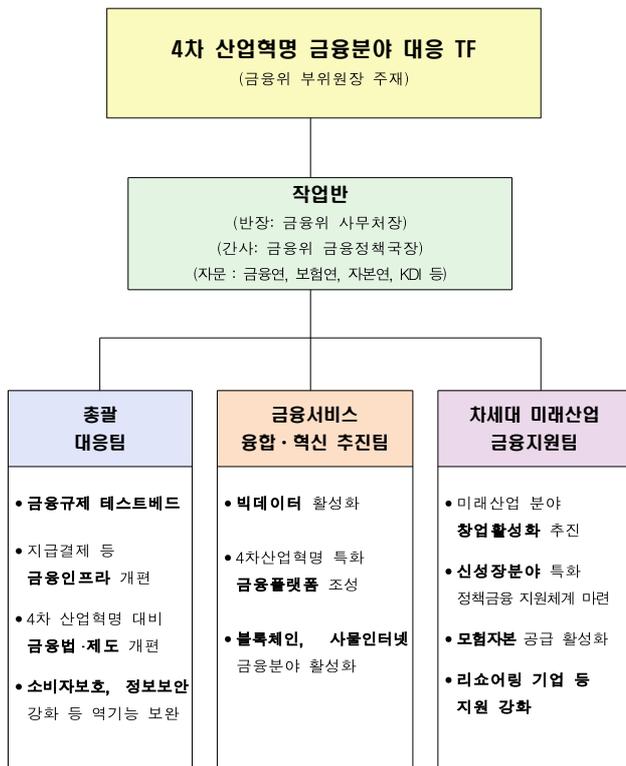
- 2 -

- 4차 산업혁명 분야 등 미래산업 분야 금융지원 강화
 - AI, 빅데이터, 자율주행차, 3D 프린트 등 차세대 미래산업 분야 관련 창업 활성화
 - 미래 신성장분야 관련 효과적인 정책자금 지원체계 마련
 - 모험자본 공급 및 회수시장 활성화 등
- 금융분야내 4차 산업혁명 활성화 추진
 - 블록체인 등 핀테크 2단계 발전 정책방향 마련
 - 금융권 빅데이터 활성화
 - 4차 산업혁명 대비 금융플랫폼 조성 등

3 향후계획

- 각 작업팀별로 분야별 정책방향 마련, 단기·중장기 과제 발굴, 전문가 간담회 등 개최
 - 핀테크, 벤처창업 등 현장 방문도 연계 추진
- 작업팀별 작업결과를 「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」 논의 등을 통해 확정 (원칙 분기별 개최, 필요시 수시 개최)
 - (단기과제) 금융규제 테스트베드 도입방안(3.20일 1차회의), 핀테크 2단계 발전 정책방향(2분기중, 잠정) 등 우선 추진
 - (중장기과제) 공개세미나(2분기) 등을 통해 「4차 산업혁명 관련 금융분야 중장기 대응전략 및 과제」 등 마련

참고 1 4차 산업혁명 대응 금융부문 TF 운영체계



* 각 팀은 금융위 담당국장, 금감원 담당 부원장보, 연구원 등으로 구성 (필요시 한국은행 및 분야별 민간전문가 등이 탄력적으로 참여)

참고 2 4차 산업혁명 금융분야 TF 민간위원 명단

성명	현직
정유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서강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 ▪ 핀테크지원센터 센터장
김원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KAIST 기술경영학부 교수
안수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
배현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하나금융연구소 소장
전성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신한금융지주 부장 (디지털전략팀장)
김수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Mckinsey 글로벌전략 컨설턴트(파트너)
이대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금융연구원 은행·보험연구실 선임연구위원
김석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보험연구원 금융정책실 실장
이효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 연구위원
구자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KDI 금융산업실 연구위원